

은유 개념의 허상과 실상*

류 수 열**·이지 선***

■ 목 차 ■

1. 문제 제기
2. 은유 개념의 허상과 실상
3. 나오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은유 개념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은유 개념이 적용되는 실제 상(象)을 검토하여 은유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1)비유사의 유무만을 직유와 은유의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2)은유의 성립 요건은 유사성인가, 3)은유와 메타포metaphor는 같은 개념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기존의 은유 개념이 지나치게 형식적·피상적으로 정의되어 왔고, 좁은 범주의 수사를 지칭하는 용어로만 주로 인식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또 은유는 유사성과 이질성의 긴장 관계에 의해서 성립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혼용되는 은유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 문체론적 은유와 해석학적 은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핵심어** : 은유, 직유, 유사성, 이질성, 문체론적 은유, 해석학적 은유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22일에 열린 한국문학교육학회 제68회 학술대회 문학교육 콘서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www.kci.go.kr

1. 문제 제기

흔히 은유는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비유의 한 종류로서 「A(테너^{tenor})는 B(비히클^{vehicle})이다」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수사법으로 인식된다.¹⁾ 이때의 은유는 직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직유는 ‘~처럼’, ‘~같이’, ‘~ㄴ 듯’, ‘~ㄴ 양’ 등의 비유사²⁾가 동반되면서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말하는 수사법이고, 이에 비해 은유는 이러한 말들의 개입 없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성립되는 수사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꽤 보편적이어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거의 없는 듯이 보인다. 미국에서 간행된 한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직유와 은유를 설명한다.

- 직유 : ① 보통 ‘~같이’나 ‘~처럼’을 활용하는, 같지 않은 두 사상(事象)의 비유. ② 그러한 문체.
 은유 : 비유가 유추에 의해 암시는 되어 있으나 진술되지는 않은 문체.³⁾

국내의 일반적인 개론서나 사전류에서도 이러한 사전적 설명은 기본적

- 1) 보통 ‘테너^{tenor}’는 ‘원관념’으로, ‘비히클^{vehicle}’은 ‘보조관념’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은 관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어인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을 그대로 노출하여 쓴다.
 2) 이후에는 ‘~처럼’, ‘~같이’, ‘~ㄴ 듯’, ‘~ㄴ 양’ 등 직유적 표현에 활용되는 말을 ‘비유사(比喩詞)’로 통칭한다. 이 용어는 중국 문헌인 『문척』의 비유를 연구한 다음 논문을 참조했다. 이승훈, 「《文則》의 비喩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5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399면.
 3) Theodore L. Harris & Richards E. Hodges(ed.), *The Literary Dictionar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5.

simile : ① a comparison of two things that are unlike, usually using words *like* or *as*.

② such a figure of speech. (p.235)

metaphor : a figure of speech in which a comparison is implied by analogy but is not stated. (p.154)

으로 존중되고 있다. 「A는 B이다」를 은유법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본다면 「A는 B와 같다」가 바로 직유법의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구별하는 설명이 대중을 이룬다.⁴⁾ 이런 설명에 따르면 직유(直喩)와 은유(隱喩)의 변별점은 마치 특정 구절이 비유임을 나타내는 표지인 비유사가 드러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관점은 나아가 은유를 ‘비유사가 생략된 직유’일 뿐, 은유와 직유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문장이고, 단지 은유는 직유보다 함축성이 뛰어날 뿐이라고 설명한다. 비유사는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이 ‘유사하다’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문법적 표지들이기도 하므로, ‘비유사가 생략된 직유’인 은유는 A와 B가 유사성을 고리로 연결된 수사이되 유사성의 표지를 감춘, 함축성이 뛰어난 수사로 인식된다.⁵⁾

이 글은 이러한 통상적인 설명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의문으로부터 촉발되었다.

- 첫째, 비유사의 존재 유무에 따른 은유와 직유의 구별법은 정당한가?
- 둘째, 은유 성립의 핵심 요소는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상’인가?
- 셋째, 은유와 메타포(*metaphor*)는 과연 같은 개념인가?

이상의 세 가지 의문 중 첫째와 둘째는 현행 중등 문학교육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없이 진리치로 보편화되어 있는 설명에 대한 도전적 질문이다. 이

4)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4, 116면(이 책의 116~132면에서 직유와 은유를 다룬다). 김진우, 『시와 언어—시학과 언어학의 만남—』, 한국문화사, 1998, 319면(이 책의 319~329면에 직유법과 은유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89~200면에서 다양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이상섭, 『문학 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325면의 직유 표제어(이 책에서는 비유를 은유라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진제하고 기술한다).

5) 물론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연구자가 임의로 취한 것이므로, 이것이 이들 책에서 설명한 직유와 은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이들 책에서는 여기에서 설명을 그치지 않고 은유론 전체로 확대되면서 그 본질까지도 깊이 제시한다. 이 글 또한 결국 이들 책에서 기술된 내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런 식의 설명은 교육 담론으로도 전이되어, 국어나 문학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문제집 등의 학습 자료에서도 일일이 거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스란히 반복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은유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일면 타당성을 지닌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이 지닌 한계 또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의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구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다. 이는 은유의 본질적인 국면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 은유 개념의 허상과 실상

2.1. 비유사의 존재 유무에 따른 은유와 직유의 구별법은 정당한가?

이제 시 두 편을 읽는 것으로 문장의 구조나 문법적 형식에 따라 은유와 직유를 구별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 수박같이 두렷한 입아 참외같이 단 말씀 마소
가지가지 하시는 말이 말마다 윈 말이로다
구시월 씨동아같이 속 성긴 말 마소서.

(나)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문정희, 「겨울 일기」에서

통상적인 구별법에 따르면 (가)의 밑줄 친 구절들은 모두 직유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수박같이’, ‘참외같이’, ‘구시월 씨동아같이’라는 구절에 비유사가 공히 포함되어 있는데다, ‘두렷한’, ‘단’, ‘속 성간’이라는 유사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표현을 직유로 보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전술한 구별법에 따르면 (나)의 밑줄 친 구절 또한 직유에 해당될 것이다. ‘~처럼’이라는 조사 형태의 비유사가 있고, 이것이 ‘염주’와 ‘독백’의 유사성을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꼼꼼히 읽어 보면, ‘염주’와 ‘독백’이 무엇을 고리로 삼아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윤나게’나 ‘윤나게 굴림’이 그 유사성이라고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독백은 가시적인 어떤 물체나 현상이 아니어서 윤이 날 수도 없고 굴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윤나게’나 ‘윤나게 굴릴 수 있는’ 것은 염주에만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염주’와 ‘독백’의 유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 유사성은 ‘윤나게 굴린다’는 말에 숨어[隱]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숨어 있기에 독자의 추론이나 상상을 요청한다. 이 구절은 독자로 하여금 염주에 윤이 날 정도라면 지속적인 반복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추론하게 하고,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지루할 정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화자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염주’와 ‘독백’은 ‘지루할 정도의 끊임없는 반복과 지속’을 유사성의 고리로 삼아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사성 자체는 숨어 있고 그 단서만이 제시되었을 따름이다. 이 ‘직유’는 오히려 구체적 형상화 과정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과연 직유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식 수사학에서 직유의 이칭으로 ‘명유(明喻)’를 쓴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명유는 직유에서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목한 결과일 터이므로, 이 경우 ‘유

사성이 드러나는가'의 문제로서 비유법의 한 측면인 '직유(혹은 명유)'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구절의 경우 그 유사성은 함축되어 있을 따름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은유와 직유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비유사의 존재만으로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비유법에서 과생되는 여러 의미의 결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 구절, 좀 더 확장하여 이 시에서 '~처럼'이라는 문법적 표지 자체도 의미상의 차이를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에 직유와 은유의 구별에 대한 한 연구를 참고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유사를 생략할 경우 원래의 뜻이 변화한다는 것을 밝혀 은유가 직유와 등가의 의미를 지닌 '생략된 직유'인 것도, 직유가 '확장된 은유'인 것도 아니며, 두 표현법은 비유사의 개재로 인해 배타적인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⁶⁾

예컨대 대중가요 <서른 즈음에>(강승원 작사)의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과 같은 구절에서 명시적인 유사성은 '멀어져 감'이다. 한편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유사성은 비히클(vehicled)에서 연상되는 '(허무하리만큼)사라짐, 혹은 스러짐'일 것이다. 따라서 이 표현에서 시간의 이미지에는 직관적인 유사성인 '허무하게 사라짐'과 명시적으로 제시된 '멀어져 감'의 이미지가 중첩된다. 만약 이 구절에서 비유사를 생략한다면 '하루는 (내뿜은) 담배 연기다'라는 은유적 문장을 얻게 될 것이다. 직유 표현이 다층적인 중첩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은유 표현은 '허무하게 사라짐'의 직관적 이미지에만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직유와 은유의 구별은 비유사를 드러내느냐와 유사성을 노출하느냐의 형식상의 문제로 인한 의미 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직유/은유'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6) 이영주, 『직유를 보는 새로운 시각: 기형도 시의 직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이 논의에서는 직유와 은유의 의미를 각각 '차이성: 유사성, 과정: 완료, 지향: 해석, 참여: 소유, 드러냄: 발간'으로 대별한다.

〈표 1〉 은유 현상의 분류

	비유사가 있음	비유사가 없음
유사성 노출	참외같이 단 말씀	입의 맑은 참외다(다니까)
유사성 은폐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	독백은 염주

즉 ‘쟁반 같이 둥근 달은 비유사인 ‘~같은’와 연결 고리가 되는 유사한 속성 ‘둥근’을 모두 드러난 직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되는 은유 표현이란 ‘달은 쟁반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반 같은 달은 ‘~같은’이라는 비유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를 직유라고 이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유사성을 숨겼다(隱)는 측면에서는 은유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흠(이상화)은 유사성을 직접 드러낸 비유 표현이며, ‘그대는... 가랑비처럼 내린다/ 내 마음에 가랑비처럼(윤강원)은 유사성을 감춘 비유 표현으로 서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사와 같은 문법적 표지의 유무에 따른 표현법의 구별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지극히 기계적으로 수행될 수는 있을지언정 시구의 의미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비유 표현이 있다면 그 함축적 의미와 표현의 효과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일 터, 비유사를 확인함으로써 특정 구절이 직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오히려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고리인 유사성을 포착하고, 이 유사성이 드러나는지의 여부, 비유사의 개재로 인한 의미의 변화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직유와 은유의 형식적인 구별이 아닌 의미적 측면을 고려한 구별이어야 하며, 비유의 각 요소가 하는 의미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한자어 은유(隱喻)의 ‘은’은 ‘숨다’는 뜻이고, 이에 대비되는 직유(直喻)의 ‘직’은 ‘직접적이다’ 혹은 ‘드러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면 비유사의 존재 유무에 따른 형식적 구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제기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다음과 같은 명제 형식으로 정리된다.

직유와 은유의 구별에서 비유사의 존재 유무는 유사성의 명시 여부와 함께 의미적 긴장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2.2.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은

은유 성립의 충분조건인가?

앞의 명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의 구별에서 중요한 비유사가 숨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이 명시적인지 암시적인지 여부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박목월)라는 표현도 본질적으로는 유사성이 숨겨진 직유라 할 수 있다.’⁷⁾ ‘간다’는 행동을 유사성의 실체로 간주한다면 이 표현은 시적 긴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유사성의 고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에 해당되는 정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 구절 또한 은유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유사성이 명시되지 않은 모든 비유는 은유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담화 공동체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 그 유사성이 명백하다면 이는 은유라 하기 어렵다. 가령 ‘백옥 같은 피부’나 ‘앵두 같은 입술’, ‘하해 같은 은혜’ 등의 관용 표현에서는 유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이나 직관으로도 그 유사성이 쉽게 포착된다. 이런 표현마저 은유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앞서 제시한 구별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어떤 직유적 표현은 관용 표현을 넘어 이미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기도 한다. ‘금쪽같은, 꿈같은, 목석같은, 불꽃같은, 실낱같은, 주옥같은, 찰떡같은’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이에

7) 이상섭, 앞의 책에서는 이 구절을 직유의 꼴을 하고 있는 은유로 보고 있다.

해당된다. 뒤에 올 피수식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비유로서 생명을 얻었으나 관습화 혹은 자동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성된다. 비유로서의 생명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생명력을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이질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비유의 성립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 반대 항목인 이질성을 비유가 지닌 생명력의 원천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꼬리 따기요’라 불리는 동요를 보기로 한다.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 / 빨간 건 사과 / 사과는 맛있어 / 맛있는 건 바나나
/ 바나나는 길어 / 긴 것은 기차 / 기차는 빨라 / 빠른 것은 비행기 / ……

이 노래는 유사성을 근거로 연속된다. 따라서 원숭이 똥구녕과 사과는 ‘빨갳다’는 시각적 요소를, 사과와 바나나는 ‘맛있다’는 미각적 요소를, 바나나와 기차는 ‘길다’는 물리적 요소를, 기차와 비행기는 ‘빠르다’는 물리적 요소를 매개로 하여 각각 비유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위 은유 형식의 문장이 형성된다.

- ㉠ 원숭이 똥구녕은 사과다.
- ㉡ 사과는 바나나다.
- ㉢ 바나나는 기차다.
- ㉣ 기차는 비행기다.

통상적 관습을 따르든 직관을 따르든, 네 문장 중에서 우리가 은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과 ㉣이다. ㉡과 ㉢은 유사성이 과도하게 높다.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이라는 범주로, 기차와 비행기는 교통수단이라는 범주로 한

데 묶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의 원숭이 똥구녕과 사과, ㉡의 바나나와 기차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적 긴장을 낳는다.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 높아진 이질성이 그 긴장의 출발점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들 문장이 은유다운 표현임을 감지할 수 있다.

사실 코언(G. Cohen)의 ‘의미론적 부당성(semantic impertinence)’이나 라일(G. Ryle)의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 등 은유에 대한 이런 저런 규정도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다. 요컨대 은유는 본질적으로 자동화된 일상적 의미의 관습으로부터 일탈한 것이며, 분류도식을 혼란시킨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은유의 미덕이라 할 발견적인 사유나 새로운 의미 창조가 비롯되는 것이다.⁸⁾ 오류나 혼란은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이질성은 은유가 은유답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질성만을 은유 성립의 유일한 조건으로 한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이다. 모든 비교가 그러하듯이 유사성과 이질성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유사성이 은유를 성립시키는 필요조건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사성은 은유 성립의 충분조건도 아니고, 필요충분조건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문제는 유사성과 이질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유 표현에서 ‘유사하다’라는 인식은 텍스트 수용자에 의해 인지되는 유사성/이질성의 정도성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유사성의 정도는 대체로 ‘지각적 유사성-보편적 인지에 의한 인지적 유사성-개인적 인지에 의한 인지적 유사성’의 순서로 낮아진다고 본다.⁹⁾ 가령 ‘참외갈

8)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된 서구의 은유 이론에 대한 개괄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옥순, 「독서의 공간 은유-이상 시 『화로』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 한국기호학회, 101~105면.

9) 이지선, 「은유 교육 연구-박지원의 『호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79면.

이 단 말쑥에서 ‘달다’는 것은 참외에서 지각되는 속성이다. ‘지각적 유사성’은 추론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인식된다. 반면 ‘인지적 유사성’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유사성이 아니라,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 간의 유사한 속성을 유추하는 추론 과정을 거치는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에서 염주와 독백 간의 유사성은 추론을 통해 인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지적 유사성은 ‘세월이 쏜살같다’와 같이 그 유사성이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에서처럼 개인에 의해 새로이 창조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보다 후자에서 유사성의 정도가 더 낮다. 달리 말하면 이질성의 정도가 큰 것이다.

요컨대 은유에서 중요한 것은, 유사성 자체가 아니라 그 유사성과 이질성의 긴장이다. ‘유사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완전히 같지 않다’, 즉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이 구심력이라면 그 이질성은 원심력이라 할 것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긴장이 없이는 지속적인 원운동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유사성과 이질성의 팽팽한 긴장이야말로 은유의 은유다움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이질성은 유사성과 긴장을 이루면서 은유를 성립시키는 한 축이다.

2.3. 은유와 메타포의 거리

앞에서 다룬 두 의문, 즉 비유사의 존재 유무에 따른 은유와 직유의 구별법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와 은유 성립의 핵심 요소는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유사성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은유 개념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면이 있다. 특히 은유와 이에 해당되는 영어 메타포^{metaphor}의 개념상 차이가

그 혼란을 부추기는 듯하다.

이제 두 용어의 연원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우리의 전통적 수사학 혹은 시학에서 ‘은유’는 송나라 진규(陳騏)의 『문칙(文則)』에서 상세히 설명된다.¹⁰⁾ 그 이전 육조시대에 간행된 유협(劉縯)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도 이미 ‘비(比)’나 ‘흥(興)’의 개념을 통해 비유 시학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바 있지만, 비유적 수사를 직유나 은유라는 용어로 정착시켜 본격적으로 해명한 것은 역시 『문칙』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직유와 은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¹⁾

직유 : 猶, 若, 如, 似를 써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一曰直喻, 感言猶, 感言若, 感言如, 感言似, 灼然可見)

은유 :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그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있는 것(二曰隱喻, 其文雖晦, 義則可尋)

이는 비유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직유와 은유를 구별하던 Literacy Dictionary의 내용과 대동소이해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 보면 『문칙』에서는 ‘은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비유사가 아니라 테너^{tenor}를 숨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¹²⁾ 즉 ‘은유’는 단순히 비유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직유와 은유의 변별점을 하나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추론 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차이이다. 직유는 ‘직접’ 드러낸다는 것이고, 은유는 ‘숨어 있지만 찾을 수 있다는 진술이다. 말하자면 그 유사성의 고리가 무엇인가를 명시하는지의 여부 또한 주요한 구별 지점이 되는 것이다.¹³⁾

10) 이하 『문칙』의 비유법에 대한 설명은 이승훈의 앞 논문을 참고하였다.

11) 직유와 은유 이외에도 『문칙』에서는 유유(類喻), 힐유(詰喻), 대유(對喻), 박유(博喻), 간유(簡喻), 상유(詳喻), 인유(引喻), 허유(虛喻) 등의 비유법을 거론하고 있다.

12) 이지선, 앞의 글, 17~19면 참고.

13) 비유, 직유, 은유의 ‘유(喻)’가 ‘깨우치다’, ‘깨닫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간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비롯된 서양의 은유론은 오히려 비유와 그 개념적 자장을 공유한다. 주지하듯 ‘메타포 $metaphor$ ’는 ‘~너머로의 운동, 전환(over)’을 뜻하는 ‘meta’와 ‘실어 나르다(carrying)’라는 뜻의 ‘phora’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다. 즉 의미의 이동과 전환, 전이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메타포 $metaphor$ 는 소위 ‘은유’를 포함하는 비유적 표현의 총칭 개념으로 쓰인다. 앞에서 우리는 은유와 직유의 구별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임을 확인했거니와, 메타포 $metaphor$ 의 어원적 개념에는 은유는 물론 직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심지어 인접성을 원리로 삼는 제유와 환유도 당연히 포함된다.¹⁴⁾ 은유를 의미론적 창조의 작업으로 접근하는 리코르(Ricoeur) 식의 해석학적 개념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유와 메타포 $metaphor$ 는 지시하는 범위 자체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직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은유(a) C 메타포 $metaphor$ 의 역어로서의 은유(b)

여기에서 은유(a)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사법적 개념이고, 은유(b)는 메타포 $metaphor$ 의 어원적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은유와 메타포 $metaphor$ 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메타포 $metaphor$ 의 번역어로 ‘은유’를 쓰는 한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은유(a)는 은유로, 은유(b)는 메타포 $metaphor$

과할 수 없다. 비유의 또 다른 한자 표기인 譬喻의 ‘譬’는 그 자체로 ‘깨닫다’ 혹은 ‘깨우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직유든 은유든 그 목적은 상대방을 깨우치게 한다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양적 전통에서 설득적·설명적 텍스트에서 은유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글, 가령 의론류 텍스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비유가 활용되는바, 이는 ‘은유’를 비과학적인 언어로 보고 진리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서구의 관점과 대비를 이룬다.

14) 제유와 환유를 은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앞에서 논의한 유사성의 문제가 다시 나선다. 제유와 환유는 유사성이 아닌 인접성에 바탕을 둔 표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청된다.

라는 외래어로 구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은유(a)는 암유(暗喻)로, 은유(b)는 은유로 함의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다. 그렇지만 웅색하다. 언어적 관습을 어기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한 연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그 출발은 은유 분류론이다.¹⁵⁾ 수식어를 붙여 은유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은유(a)를 문채론적 은유로, 은유(b)를 해석학적 은유로 구별하고자 한다. 문채론적 은유는 직유의 상대 개념으로 앞의 사전식 설명에서 제시한 대로, 암시는 되어 있으나 그 뜻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문채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석학적 은유는 기표의 ‘이동’에 초점을 둬으로써 세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인식적 안목을 제공하는 은유, 즉 ‘연금술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어 주는 기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개념의 복잡도에 따라 교육적 위계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그럴 때 당연히 문채론적 은유가 선행되고 해석학적 은유가 뒤따르는 형국이 될 것이다. ‘금쪽같은 자식’이란 표현은 ‘금쪽’과 ‘자식’ 사이에 ‘귀하다’라는 유사성이 쉽게 인지되는 문채론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른 바, ‘노년’을 ‘인생의 황혼’이라고 표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생 : 노년’의 관계는 ‘하루 : 황혼’의 관계와 유사성이 쉽게 인지된다. 따라서 문채론적 은유는 해석학적 은유에 비해 개념적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거나, 인지적 유사성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은유는 문채론적 은유를 포괄하되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15) 남민우,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36, 문학교육학회, 2011.
이 논문에서는 은유를 작품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조적 은유와 장식적 은유, 인지적 특성을 기준으로 이성적 은유와 공상적 은유, 본질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본질적 은유와 비본질적 은유로 분류하고 있다.

것을 포함하는 은유이므로 더 복잡하다. 파운드(E. Pound)의 『지하철 정류장에서』는 ‘군중 속에 낀 이 얼굴들의 환영/비에 젖은 검은 나뭇가지에 걸린 꽃잎들’이라는 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은유는 유사성이 쉽게 인식되지 않는 은유다. 연암이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에서 고요한 밤 풍경을 전쟁의 상황에 빗대어 묘사한 것도 그런 예라 하겠다. 이러한 은유는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학적 은유는 문체론적 은유보다는 뒤따르는 교육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나오며

이 연구는 은유와 직유를 비유사의 개재 유무로만 구별하는 형식적인 구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유와 직유는 비유사의 개재 유무 외에도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의 연결 고리인 유사성을 드러내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표현법으로 나타나며, 비유사와 유사성은 표출 여부에 따라 의미적 긴장을 형성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편으로 유사성은 이질성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테너^{tenor}와 비히클^{vehicle} 간의 긴장의 느슨함/팽팽함 정도를 조절한다. 따라서 은유와 직유는 형식적인 구별법이 아닌 의미적 긴장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형식적인 구별법이 교육 현장의 담론에 그대로 수용됐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의 담론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오류 자체를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교육 담론의 오류는 학술 담론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즉 학습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섬세하고 복잡한 결을 지니고 있는 학술 담론을 교육 현장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순화는 종종 정

밀성과 엄격성의 훼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 담론은 전공자가 아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 혹은 조작된 결과물인 것이다. 직유와 짝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온 은유의 개념 설정 또한 이러한 단순화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담론의 오류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은 지식의 반복적인 재생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를 고쳐 가려고 하지 않으면 박제된 상태로 지식이 재생산될 우려가 크다. 은유와 직유의 문제에 한해 보면, 기존의 교육 담론으로는 은유와 직유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데 그칠 뿐 그 의미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간의 소통과 긴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오류’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옥순, 「독서의 공간 은유—이상 시 「화로」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3, 한국기호학회, 101-123면.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4.
- 김진우, 『시와 언어—시학과 언어학의 만남—』, 한국문화사, 1998.
- 남민우,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36, 문학교육학회, 2011, 257-285면.
- 이상섭, 『문학 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 이승훈, 「《文則》의 比喻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5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 393-411면.
- 이영주, 「직유를 보는 새로운 시각 : 기형도 시의 직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지선, 「은유 교육 연구—박지원의 「호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Theodore L. Harris & Richards E. Hodges(ed.), *The Literacy Dictionar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5.

Abstract

Actual and False Image of Concept of Metaphor

Ryu, Su-Yeol · Lee, Je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ual and false concept of metaphor and to verify need of redefining concept of metapho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constructed. 1) Is grammatical markers revealing the similarities of vehicle and tenor the appropriate criteria to classify the metaphor and simile? 2) Is 'similarity'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of metaphor? 3) Is same the concept of metaphor of the East and metaphor of the West? It can be seen as follow. Conventional concept of metaphor is defined too formal and superficial, and it has been used in a narrow sense.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ction to create a metaphor. Lastly, we propose the term to distinguish the complex metaphorical concept, trope metaphor and interpretive metaphor.

⊕ **Key Words** : metaphor, simile, similarity, dissimilarity, trope metaphor, interpretive metaphor